

# 민주노동당 '4월의 봄 연다'

노동과세계 | 승인 2008.03.17 13:20

## 민주노동당 '민생살리기에 주력...17일부터 민생대장정 돌입

[사진1]

"4월의 봄, 민주노동당이 열겠습니다!"

17일 오전 8시 국회 본청에서 연 민주노동당 선거대책회의에서 천영세 대표가 "총선 승리로 민주노동당 제2 전성기를 열자"고 호소했다.

천 대표는 "지난 15일 마감한 비례대표 전략명부를 포함한 당직, 공직후보 선출 총투표가 당원들의 적극 참여로 잘 마무리 됐다"고 보고하고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노동당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모아 준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한청 등 배타적 지지단체 회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심경을 피력했다.

이어 천 대표는 "(민주노동당)혁신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투표 과정에서 보내주신 따듯한 지적과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오직 민주노동당 혁신과 총선 승리를 위해 힘차게 매진하겠다"는 말로 총선승리 투쟁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천영세 대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출범 초기부터 1% 재벌과 대기업은 음흉한 미소를 띄고 (이명박 정권에게)기대를 걸고 있지만 99% 서민들은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부동산투기 내각 구성에 대한 비판여론 확산, 물가폭등 등에 따른 서민 생활고 심화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 한나라당에 대해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공천 줄서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라면값, 자장면값 등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현 상황을 진단하고 "석유와 원자재 값 급등으로 주물업계, 레미콘 업계 등 중소기업도 위협하고 물가 급등으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20일만에 서민들이 이명박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그밖에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을 엿볼 수 있는 '코스콤 비정규노동자 농성장에 대한 폭력 철거사태'를 비판하고 '이명박 정권의 첫 내각 일부 내정자들의 각종 부정부패 추문'을 비판했다.

천 대표는 마지막으로 "지금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 물갈이와 민생 살리기"로 규정하고 "이제는 정말 민주노동당이 나서야 하며 이번 총선을 통해 기필코 민주노동당의 명예를 회복하고, 강력한 민생정당으로 제2 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민주노동당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 16일 서울 구로시장 앞에서 민주노동당 비례후보와 천영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서울 경기 지역 총선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살리기 대장정 선포식'을 가졌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24일까지 1차 민생대장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